한국심리학회지 : 상담 및 심리치료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002. Vol. 14, No. 3, 599-619

가족 재구성 모델을 통한 자기 성장 집단 상담*

김 정 희†

전북대학교

가족 관계를 지금 여기에서 재 경험하는 과정을 통하여 개인이 자신에 관한 자각을 넓히고 대인관계에서 경험하는 문제들을 더 잘 다루어가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Satir의 가족 재구성 모델을 활용하여 집단 상담을 개발하였다. 이 집단은 3박 4일 동안 이루어지는 시간 집중적 집단이며 18명의 집단원이 참가하였다. 구조화된 프로그램과 비구조화된 피드백 과정이 조합된 형태를 취하며 사전 연습, 가족 재구성 과정 및 마무리 과정의 세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가족 재구성 과정은 자신의 가족관계를 다루기 원하는 스타를 중심으로 작업이 이루어지며 한명의 스타가 작업하는데는 약 3-4시간이 소요된다. 이 과정은 도입단계, 스타의 원가족 조각, 부모의 원가족 조각, 부모의 결혼과정 조각, 스타가족의 재조각, 원가족 조각의 마무리 및 재구성 작업의 마무리로 이루어진다. 본 연구에 제시된 스타는 이 과정에서 과거의 영향력을 경험하고 이를 자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재구성함으로써 새로운 통합을 이룬다. 3개월 후 추후 조사에서 스타는 가족과 자기 자신에 대한 조망이 긍정적 방향으로 변화했음을 보여준다. 집단 참여자들은 집단이 시작되기 전과 비교하여 집단이 끝난 일주일후 에는 자아 존중감과 사회적지지에 유의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으나 한달 후에 측정하였을 때는 두 척도 모두에서 유의한 변화를 보여서 가족 재구성 집단이 장기적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주요어 : 가족 재구성, 집단, 스타, 가족조각, 원가족, 자기

김정희는 전북대학교 심리학과에 근무하고 있음.
* 이 논문은 2000년도 전북대학교의 지원 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교신저자 : 김 정 희, (561-756) 전북 전주시 덕진구 전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심리학과,
전화 : 063-270-2928 E-mail : chkim@mail.chonbuk.ac.kr

자기는 이론가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정의된다. Jung은 자기(Self)를 성격에 질서와 통합을 가져오는 원형적 에너지로서 그것으로부터 성격이 전개되어 나오는 전체성으로 정의하면서 자기를 개인적 성장의 목표로 본다(Douglas, 2000). 인간 중심 치료에서는 자기 혹은 자기 개념을 조직되고, 일관적이고, 개념적인 게스탈트로서 '나'라고 하는 특성에 대한 지각과 나와 타인 및 인생의 여러 측면과의 관계에 대한 지각, 그리고 이 자각에 대한 가치로 정의한다(Raskin & Rogers, 2000). Satir(Satir, Banman, Gerber, & Gomori, 1991/2000)는 자기를 내적 경험의 근원으로 보았으며, 개인의 가장 핵심에 자리잡고 있으면서 신체, 지적 활동, 감정과 정서, 감각, 인간 관계, 영양상태, 환경 및 영적 에너지에 둘러 쌓여 있다고 보았다. 자기를 어떻게 정의하던지, 집단 상담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중요한 목표 중의 하나는 자기의 성장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자기의 성장은 가족에 대한 지각과 느낌을 재경험함으로써, 혹은 일차 가족 경험의 교정적 재현으로(Yalom, 1995) 이루어질 수 있다.

1960년대 미국을 중심으로 다양한 집단활동이 활성화되어 왔고, 엔카운터 집단이나 자기 성장 집단은 대인 관계의 증진과 더 훌륭한 자아실현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의 통로로 간주되었다(Corey & Corey, 1995/2000). 개인의 성장에 목적을 둔 집단 상담들은 주로 구조화된 방법을 취하며 치료보다는 예방에 더 초점을 맞춘다. 이장호와 김정희(1992)는 집단 상담의 목표를 자기 이해, 자기 수용 및 자기 관리 능력의 향상을 통한 인격적 성장; 개인적 관심사와 생활상의 문제에 대한 객관적 검토와 그 해결을 위한 실천적 행동의 습득; 그리고 집단 생활 능력과 대인관계 기술의 습득에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집단의 리더들은 각자가 취하고 있는 심리치료 이론의 입장에 따라 다 양한 집단들을 구성하고 실천하고 있다.

20세기 후반부터 등장한 새로운 문화적 움직임의 하나는 이제까지 개별적 구역으로 알려져 있던 영역들의 통합이다. 이 문화적 특성은 특히 예술계를 중심으로 동양과 서양의 문화의 장벽을 무너트리고, 고전과 현대의 통합을 이루려는 움직임을 가져왔다. 심리치료 분야에서도 이러한 움직임의 하나로 이제까지 개인 치료, 집단 치료, 가족 치료 등으로 분류되던 구별이 모호해지고 영역간의 퓨젼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움직임의 하나가 Satir의 모델이다. Satir 등(1991/2000)은 그들의 책 이름을 **사티어 모델: 가족치료의 지평을 넘어서**라고 함으로써 이 모델을 가족 치료 이외의 영역에도 적용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개인의 성장을 목표로 하는 집단들은 치료집단과 마찬가지로 주로 지금 여기에서의 상호작용을 중요시 여긴다(Yalom, 1995). 집단의 지도자는 지금 여기의 상호작용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집단의 목적은 가장 기본적인 사회적 단위인 가족 관계를 지금 여기에서 재경험하는 과정을 통하여 개인의 자각(self-awareness)을 넓히고 대인 관계에서 경험하는 문제들을 더 잘 다루어가도록 하는 데 있다. 그러기 위하여 연구자는 Satir(Satir, 1988; Satir 등, 1991/2000)의 가족 재구성 개념을 도입하여 집단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Satir에 의하여 1970년대에 개발된 가족 재구성 과정은 여러 세대에 걸친 가족의 상호작용, 신화, 규칙 등을 탐색하기 위하여 설계된 것으로 주로 마라톤 집단 맥락에서 이루어지지만(Yeun, 1980), 주간 단위의 집단으로 이루어지기도 한다(Taylor, 2002). 이 집단에서 자신의 가족을 탐색하기 위해 자원한 참여자는 스타(STAR)라고 하며, 집단의 지

도자는 안내자(Guide)라고 칭한다. 가족 재구성은 사람들을 원가족의 역사적이고 심리적인 母型(matrix)으로 들어가 재통합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강력한 변환의 방법이다. 이것은 자신과 부모를 새로운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고, 그에 따라 현재와 미래도 새로운 조망으로 볼 수 있게 해준다. 이 새로운 조망은 개인으로 하여금 더 큰 가능성에 접근하도록 도와주고 더 많은 자유와 책임감을 증가시킨다(Satir 등, 1991/2000). 우리의 내면 세계는 보편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가족 재구성 과정에서는 스타 뿐 아니라 스타와 함께 작업하는 참여자들도 그들의 내면 세계에 근거하여 반응을 하게되어 스타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Taylor, 2002).

본 연구에 사용된 집단은 전체 집단원을 대상으로 하는 준비단계와 스타를 중심으로 하는 가족재구성 과정 및 이에 대한 피드백을 나누는 공유과정이 있는 점에서 심리극(Blatner, 1973/ 1988)과 모양새가 비슷한 점이 있다. 게스탈트 치료 중 한 형태에서는 집단의 참여자가 치료자와 일대일의 작업을 하고 나머지 집단원들은 그 동안 조용하게 있으면서 간접적으로 작업을 한다. 개인 작업이 끝난 후에는 이 작업에서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에 초점을 맞추어서 다른 집단원들과 함께 피드백을 주고받는다(Yontef & Jacobs, 2000). 정신 역동적 집단 상담에서도 개인의 핵심 감정을 중심으로 집단 내에서 개인 작업을 한다(한은영, 2002). 본 연구에서 택하고 있는 방법도 구조화된 집단 작업과 개인의 가족을 재구성하는 과정을 복합하여 사용하고 있다.

Satir의 모델은 가족치료를 위하여 개발되었으나, 1990년대 이후에는 단기 개인치료와 집단 치료에 모두 적용되고 있다(Banman, 2001). 개인 치료나 집단 치료를 위하여 Satir의 내면의 빙산 모델이 주로 활용되고 있으며, 가족 재구성을 주제로 하는 집단은 Yuen(1980)와 Tayler(2002)의 연구가 있을 뿐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몇 연구자들이 Satir 가족치료 이론을 바탕으로 구성한 집단 상담에 대한 연구를 시행하고 있다. 이들은 주로 가족 의사소통의 유형을 주제로 집단의 내용을 구성하였으며 의사소통 지각에 의미 있는 향상을 가져오거나 자아 존중감 향상에 효과가 있었다(유수경, 1996; 한선화, 1997). 심혜숙과 김수연(2000)의 연구에서는 가족조각 기법을 사용한 집단 상담이 참여자의 인생태도에서 자기 긍정을 향상시켜 자존감의 향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Satir의 가족재구성 모델을 기초로 연구자가 개발한 개인의 자기 성장을 위한 집단에서 실제로 가족재구성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한 스타의 사례를 예로 들어 제시하며, 집단참여자들이 집단 경험 후 가족에 대한 만족도, 자존감 및 사회적 지지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제시하고자 한다.

방 법

참가자

집단의 참가자는 광고를 통하여 모집하였으며, 총 18명이 지원을 하였다. 그중 남자는 4명이었고 여자는 14명이었다. 이들의 연령은 22세에서 46세의 범위에 있으며 평균 연령은 31.4세이다. 이들의 학력은 대학 재학생에서 대학원 졸업생까지의 범위에 있다. 이 중 5명은 집단이 끝난 후 일주일이 경과되었을 때와 한 달이 경과되었을 때 실시한 질문지에 응답을 하지 않아 분석에서는 제외되었다. 이들을 제외한 응답자의 평균 연령은 34.0세이다.

도구

가족 만족도

가족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한상분(1992)이 가족 적응성과 응집력 평가 척도를 번안하여 만든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이는 성인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기 보고식 검사로서 총 20문항 중, 10문항은 가족적응성을 나타내며 10문항은 가족 응집성을 나타낸다. 각 문항은 5점 척도(1점-5점)로 되어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적응성과 응집성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 검사의 내적 일치도 계수(Cronbach's α)는 적응성은 .63이고 응집성은 .65이며 전체 척도의 신뢰도는 .76이다.

사회적 지지(가족)

이 검사는 개인이 얼마나 정서적 지지를 받고 있다고 지각하는가를 측정하기 위하여 김정희(1992)가 개발한 척도 중 가족 부분을 사용하였다. 가족이 어느 정도나 지지를 보내고 있다고 지각하는가를 14개의 항목으로 측정하는 것이다. 각 항목은 전혀 그렇지 않다(0점)에서 항상 그렇다(4점)까지의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원 척도의 신뢰도는 α =.96이다.

자아 존중감 척도

Rosenberg(1965)의 척도를 이영자(1994)에서 발췌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10문항으로서 긍정적 문항 5개와 부정적 문항 5개로 이루어져 있다. 문항에 대한 응답은 거의 그렇지 않다(1점)에서 항상 그렇다(4점)까지의 4점 척도이고 부정적 문항은 역 채점을 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영자의 연구에서 측정한 검사의 신뢰도는 α =.79이었다.

문장완성 검사

이 검사는 50문항으로 이루어진 미완성 문장들을 완성시키는 투사형 검사이다. 여기에 포함된 문장들은 개인의 가족관계를 비롯한 대인관계, 자기관 등을 알아볼 수 있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상담시 내담자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검사이다.

집단의 구성과 절차

이 집단은 구조화된 프로그램과 지금 여기에서 피드백을 주고받는 과정이 조합된 형태를 취하며 세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사전 연습, 가족 재구성 과정, 그리고 마무리 작업이다. 집단의 형태는 마라톤 집단으로 3박4일 동안 진행되었다. 집단원들은 집단에 참여하기 전에 이 집단의 이론적 배경을 소개한 자료를 읽고, 원가족 도표, 가족의 연대기 및 영향력 바퀴를 작성한 후 이 자료와 가족이 함께 찍은 사진을 세 장 이상 가지고 집단에 참석하였다. 가족 재구성 과정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전체 집단원이 함께 에 제시된 8가지 연습으로 워밍업을 위한 작업을 하였다. 사전 연습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하루 정도이다. 매일 저녁 식사 후에는 두 시간씩 “나는 누구인가?”에 관한 명상을 하였다. 본 집단의 핵심인 가족 재구성 과정은 Satir 등(1991/2000)에 제시된 내용을 원형으로 하여 발표자가 개발한 것이다. 집단원 중 희망하는 사람이 스타가 되어 그의 가족 관계를 중심으로 작업을 한다. 이때 집단원들은 스타가 가족 조각을 할 때 각 가족의 역할을 담당하며 작업이 끝난 후 피드백을 통하여 경험을 나눈다. 가족 조각을 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안내자와 스타가 그 상황에서 가장 대표적인 장면을 찾아내는 작업을 한 후, 스타는 가족 구성원의 역할을 할 집단원을 지목하고, 각 역할자의 의사

소통 유형, 즉 대처 자세와 그 상황을 대표할 수 있는 정서적 언어를 정한다. 리더는 각 역할자가 자신의 대처 자세와 대표적인 대사를 표현하도록 지시하며 필요한 경우 이를 더 강하게 혹은 더 약하게 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스타는 이 과정을 때로는 장면 밖에서 때로는 장면 내에서 같이 경험한다. 일반적으로 한 스타의 작업 시간은 3~4시간이 소요된다. 이 집단에서는 3명의 스타가 작업을 하였으며 결과에 제시된 사례는 그중 두번째 작업을 한 스타이다. 가족 재구성 과정이 끝난 후에는 다시 전체 집단원이 가족 재구성 작업 전 과정을 통하여 경험한 것에 관한 피드백을 주고받는다. 집단의 안내자는 가족 재구성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에 전체 시간 길이를 고려하여 피드백에 사용되는 시간을 조절하였다. 마지막 스타의 작업과 피드백이 끝난 후, 아봐타 다시떠오르기(Palmer, 1994/2000)에서 발췌한 자비심 연습과 화해의 언덕 오르기 연습을 하고 전체 소감나누기와 마무리 작업을 하였다. 집단의 안내자는 본 연구자이었고 박사과정을 수료한 상담심리 전문가가 공동 안내자로 전 과정을 보조하였다. 집단의 전 과정을 녹화하였으며 집단을 시작하기 전과 집단이 끝나고 일주일 후에 사후 조사를, 일개월 후에 추후 조사를 하였다. 스타를 경험했던 참가자에게는 3개월 후에 문장완성검사와 집단 참가에 대한 소감을 별도로 조사하였다.

결 과

가족재구성 집단 참가자의 사례[1)]

도입 단계

이 집단에서는 스타가 결정되면 먼저 가족 도표(그림 1)와 영향력 도표(그림 2)로 자신의 가족을 설명한다. 스타는 대학교 4학년 남학생으로 키가 크며 쾌활하나 행동을 거칠게 하는 형이다. 스타가 요약한 가족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아버지: 술을 지나칠 정도로 좋아함. 지금은 괜찮은데, 예전엔 너무 싫었다. 집안 전체를 비난하는 형. 폭력을 많이 사용. 야구 방망이로 자녀들을 때리고 아내에게도 심한 폭력 사용.

어머니: 중졸. 독실한 기독교. 신경성 위장병으로 오랜 기간 동안 병원에 입원. 아버지만 빼고 가족들 모두에게 회유형. 아버지의 비위는 절대로 안 맞춰줌.(기독교가 아니므로) 의존적인 척 하시는 것 같고, 외향적이고, 다양한 모습.

형 : 23살에 결혼. 현재 신학대학원 재학. 마음에 안든다. 사고를 쳐서 아이 낳은 후 결혼. 형수도 마음에 안듬. 술을 매우 잘 먹음(매주 세 박스 마신 적도 있음). 형은 비난형, 신경질적이고 날카롭고, 신경증으로 일년 정도 병원에 입원 한 후 군대에 가지 않았음.

본인: 성격이 급하고 적극적. 후배들이 극과 극이라고 함. 영화에 나오는 것 같이 웃으면서 발길질하는 유형. 술 좋아함(소주 3병 정도).

동생: 기독교. 책 읽기, 그림 그리기, 기타 치는 것 좋아함. 회유형. 교회 선생님 하면서도 술 담배 다 먹음. 취미가 술 먹기일 정도... 현재 같이 살고 있다. 고집도 있고 사랑도 베풀 줄 알고 성격도 참 좋고, 자랑스러운 동생(스타는 동생의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울먹임).

1) 이 자료는 2001년 상담 및 심리치료학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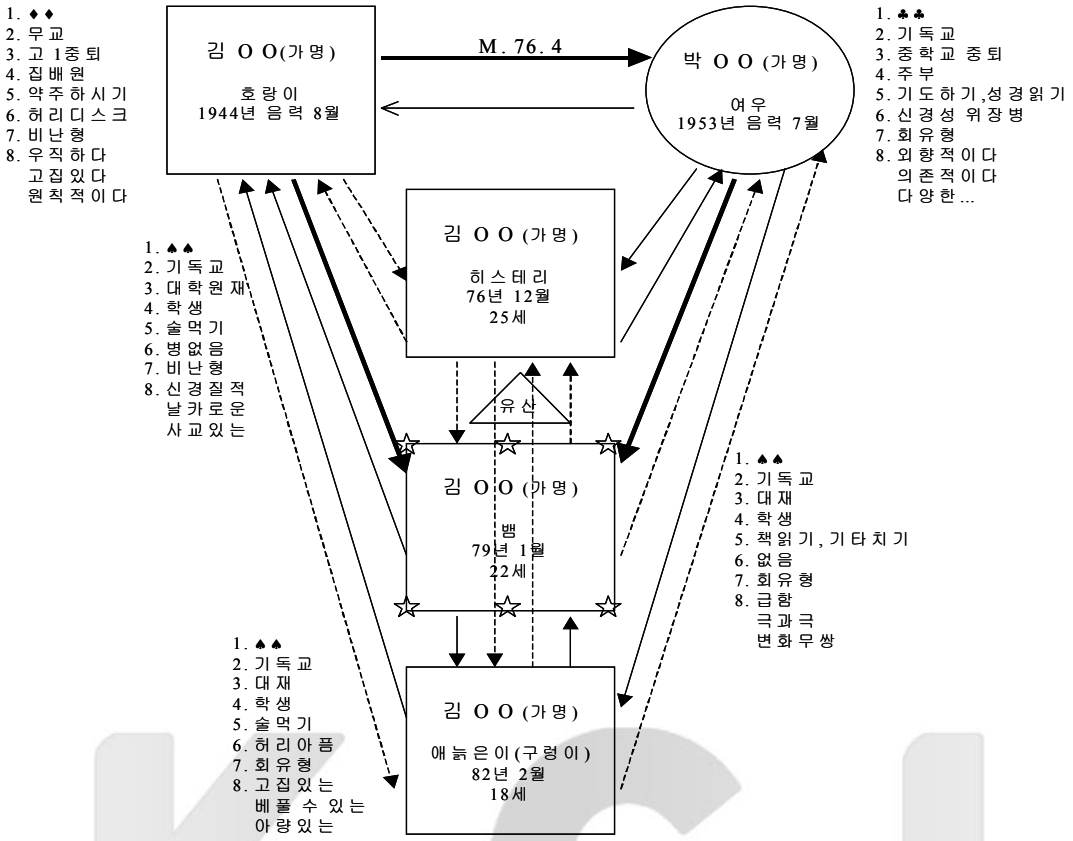

그림 1. 스타의 가족 도표

주. 1. 출생지 2. 종교 3. 학력 4. 직업 5. 취미 6. 질병 7. 대처 자세 8. 대표적인 형용사

스타가 가족 재구성 과정을 통하여 변화시키고자하는 것은 가족 내에서 계속되는 알콜과 폭력의 문제로 인한 영향력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다. 스타는 다음과 같이 목표를 제시하였다.

"아버지는 가난한 가계를 일으키기 위하여 고생을 많이 하였으며 술을 많이 드시고, 식구들 모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으나, 최근에는 약한 모습을 보인다. 어머니도 아버지한테 굉장히 많이 맞았다. 아버지의 약한 모습을 보면 화가 난다. 아버지는 형을 많이 때렸고, 형도 나를 때리고, 나도 동생을 정말 많이 때렸다. 돌아가는 쳇바퀴처럼, 너무 싫다. 아버지가 고생을 하니까 화가 나고, 가족 대대로 이어가니까 깨고 싶다. 이것이 지금의 소원이다."

스타의 원가족 조각

안내자는 스타가 가장 갈등을 가졌던 시기를 떠올리게 하고 이를 조각으로 표현하도록 하였다. 스타는 다음과 같이 갈등시기를 회상하였다.

"초등학교 3학년 때로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웠던 시기였다. 옆집 차를 누군가 펑크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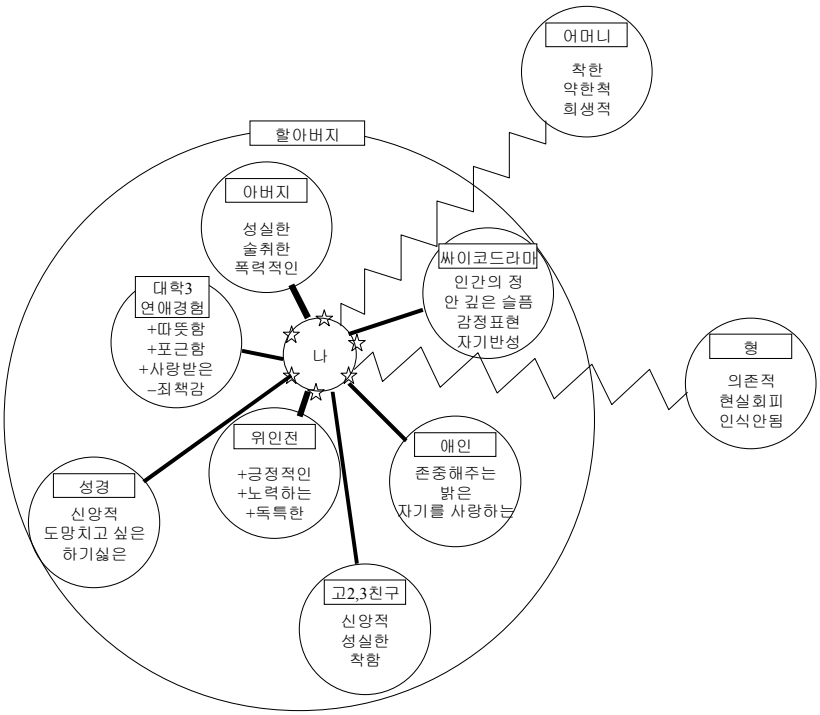

그림 2. 스타의 영향력 바퀴

었는데 옆집 아줌마가 막 쫓아와 형이 그랬다고 항의했다. 형이 안 그랬다는 거 나도 알았다. 어머니가 화가 나셔서 형을 막 때리시더니. . 죽어버리라고.. 아버지가 약주 드시고 오셔서... 어머니가 화가 나서 이르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형을 베란다에서 던지려고 하였다....자라오면서 형이 부럽고 질투가 났었다. 형이 없어져 줬으면 했는데 딱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무서웠다.....울면서 무릎꿇고 제발 형 살려달라고....형 없으면 안 된다고...제발 형 좀 살려달라고 했다. 어머니, 아버지가 계속 베란다에서 헹가래를 쳤다... 방금이라도 던지실 것 같은데..... 나는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

안내자는 그 장면에 있었던 부모와 형, 스타의 역할을 해줄 사람을 고르게 하고, 가족 조각으로 구성하게 하였다. 스타는 아버지 역할을 지정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 가족 조각 1.

1) 구성원: 아버지, 어머니, 형, 스타대역[2)]

2) 조각 형태: 아버지는 형의 팔을, 어머니는 형의 다리를 잡고 던질 듯한 자세 조각. 약 2m 정도 떨어져서 무릎을 꿇고 앉아 빌며 애원하는 스타대역의 모습 조각.

2) 실제 스타와 가족 조각에서 스타의 역할을 하는 사람을 구분하기 위하여 내담자는 스타로 역할을 맡은 사람은 스타대역으로 표기하였다.

안내자는 그 장면을 가능하면 사실적으로 만들어주기를 요청하고 그 장면을 대표할 수 있는 언어적 반응을 질문하였다. 스타는 각 역할자의 대표적인 대사를 이야기하였다. 아버지는 “이 새끼 죽여버려야 돼.”, 어머니는 “맞다, 그래.”, 스타대역은 “형 좀 살려주세요.”, 형은 아무 말도 없이 비명을 지른다. 이 장면에서 스타는 조각을 구성하는 과정에서도 계속 흐느끼면서 고통스러워하였다. 이 과정이 진행된 후 안내자는 그 순간의 가족이 어떤 모습이 되기를 바라는가를 스타에게 묻고 이를 재조각 하도록 하였다. 스타는 몸부림을 치면서 울며 아버지와 어머니에게는 “그 손을 놓으세요.”라고 하며 형에게는 “형, 빌어, 살려달라고 해.”라고 말하였다. 안내자는 스타 대역에게 이 대사를 반복하도록 지시하였다. 갈등의 과정이 한동안 진행된 후, 스타가 원하는 대로 스타대역이 부모에게 가서 형을 부모로부터 떼어놓아 형을 구출하였다. 스타는 예전에는 무기력하게 울기만 했으나 이제는 형을 위험에서 구하는 경험을 할 수 있게 된다. 이 시점에서 안내자는 스타에게 자신이 원하는 가족의 모습을 조각 해보도록 요청하였다.

☞ 가족 조각 2.

1) 구성원: 아버지, 어머니, 형, 스타대역, 동생

2) 조각 형태: 형을 일으켜 세워 아버지, 어머니와 손을 잡는 모습으로 세움. 그 앞에 스타대역과 동생(집단원 중 한 사람 더 불러냄)을 앉히며, 가족 사진 찍는 모습 조각.

안내자는 스타에게 이 조각을 약간 떨어진 거리에서 경험하도록 하며, 아버지, 어머니, 형에게 지금 이 장면에서 하고 싶은 말을 하도록 하였다. 스타는 아버지에게는 “바로 그거예요.”, 어머니에게는 “고맙습니다.”라고 하며, 이에 대하여 어머니는 “내가 정말 이렇게 해 주고 싶었다.”라고 대답할 것이라고 반응하였다. 형에 대하여는 한번도 사랑한다는 말을 해보지 못했다고 말하며, 이를 표현하도록 하자, 다가가서 “형, 정말 사랑해....형 땜에 내가 여기까지 온 거 같애. 고마워, 형.”이라고 하였다. 형이 어떻게 답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쑥스러워하지만 속으로는 고마워할 것 같다”고 반응하였다. 이 시점에서 안내자는 스타의 아버지에 대한 심정을 묻고, 스타는 “형에게 다정하게 해준 것에 대하여 감사를 하고 싶다”고 하였다. 안내자는 가족조각 속으로 들어가 역할자들과 함께 이를 느껴보도록 지시하였다. 스타는 눈물을 흘리며 고마움을 표현하고 역할자들은 스타를 다독거려준다. 안내자는 가족조각을 마무리하고 역할자들에게는 역할을 벗는 작업을 지시하였다. 역할자 모두 들어가고 이 작업에서 스타가 경험한 소감을 들었다. 이 작업에 대한 스타의 소감은 다음과 같다.

> “형은 나에게 진짜로 꼭 필요했던 사람이었다. 가족 구성원 한사람 한사람이 서로 꼭 있어야만 했던 사람들이구나 라는 걸 느꼈다. 아버지는 힘드시니까, 찢어지게 가난하니까 . . . 가난이 싫었던 것 같다. 내 자신의 모습은 형한테 달려가는 모습이 너무나 새롭게 다가왔다.”

부모의 원가족 조각

안내자는 스타와 함께 아버지의 생활에 영향을 미친 인물들을 정하고 역할자를 고르게 한 다음 아버지 원가족들의 전형적인 대처 자세와 대표적인 언어를 찾아내는 작업을 하였다.

☞ 가족 조각 3.

1) 구성원: 할아버지, 할머니, 작은아버지, 고모 1, 2, 3, 아버지,

2) 조각 형태: 할아버지는 아버지를 비난, 할아

버지 왼쪽에 조금 떨어져 위치한 할머니는 아버지와 다른 자녀들을 모두 비난하는 모습. 맞은편에서 아버지를 비난하는 작은아버지와 고모1. 할아버지와 할머니, 작은아버지와 고모 사이에서 무릎을 끓고 모든 가족들을 향해 양팔을 벌려 회유하는 아버지, 가족들 뒤에 서서 이러한 모습을 안타까이 바라보는 고모 2, 3

3) 대표적인 언어: 할아버지: 네가 다 책임져야 해.// 할머니: 네가 다 책임져야 해.// 고모1: 오빠가 다 책임져야 해.// 작은아버지: 형이 다 책임져야 해.// 고모2: 아이 불쌍해라.// 아버지: 아! 답답해. (각자의 자세를 유지하며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함.)

안내자는 스타에게 아버지의 심정을 묻고, 스타는 답답한 듯 가슴을 쓸어 내린다. 안내자는 스타로 하여금 아버지의 옆에 가서 아버지의 마음을 느껴보도록 하였다. 그 동안 역할자들은 대사를 계속 반복하였다. 안내자가 역할자들에게 소리는 없이 자세만 취하도록 지시하고 스타에게 아버지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스타는 안타까운 감정을 강력하게 표현하면서 "아버지 왜 그렇게 사세요? 그렇게 살지 마세요!" 라고 하였다. 안내자가 아버지가 어떻게 살면 좋겠는가를 묻자 "사랑받고 존중받았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사랑받고 존중받아야 되요. 아버지, 그럴 권리 있어요."라고 하였다. 안내자는 스타가 이 반응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스타가 원하는 아버지의 가족 관계를 조각하도록 하였다.

☞ 가족 조각 4.

1) 구성원: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작은아버지, 고모

2) 조각 형태: 할아버지 오른쪽에 고모를 세우고, 고모 옆에 아버지를 세움. 할아버지 왼쪽에 작은아버지를 세우고, 작은아버지 옆에 할머니를 세워 가족 사진 찍는 모습 조각.

스타는 가족 조각에 만족을 표하고, 안내자는 스타로 하여금 아버지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하도록 하였다. 스타는 아버지에게 다가가서 포옹하였다. 안내자는 가족 조각을 마무리하고 역할자들에게는 역할을 벗는 작업을 지시하였다. 역할자는 모두 들어가고 이 작업에서 스타는 다음과 같이 소감을 말하였다.

> "아버지가 모두 책임을 지고, 아버지 힘들었겠구나. 고통은 잘 느껴지는데.. 조금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 있어요.[안내자: 어떤 점이?] 고통을 왜 참지 못했나....고통을 참고...우리들한테 안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스타가 새로운 가족 조각에 대하여 충분히 만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안내자는 가족조각 3에 참여했던 역할자들에게 같은 모습으로 역할을 재연하도록 하였다. 고모 1, 할아버지, 작은아버지가 나와서 자신의 대처 자세와 대사를 계속 반복하였다. 스타가 아버지의 자리에 들어가고, 역할자들은 역할을 계속하였다. 스타가 아버지의 위치에서 나오고, 다시 장 밖에서 아버지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안내자는 스타가 아버지의 고통을 이해했음을 확인하고, 역할자들이 역할 벗는 작업을 한 후, 이제까지의 과정에서 역할을 담당했던 소감을 나누었다. 역할을 담당했던 사람들이 경험을 나누고 난 후에, 다른 집단원들이 경험한 바를 같이 공유하는 작업을 하였다.

아버지 원가족의 작업이 끝난 후, 안내자는 스타와 함께 어머니의 생활에 영향을 미친 인물들을 정하고, 역할자를 고르고, 각 가족의 대처 자

세를 확인한 후 가족 조각을 구성하고, 각 역할자의 대표적 언어를 정하였다. 스타는 어머니의 가족 조각을 한 후, 외할머니의 자세를 처음에는 외할아버지만을 회유하는 자세에서 전 가족을 회유하는 자세로 바꾸었다.

☞ 가족 조각 5.

1) 구성원: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큰외삼촌, 작은외삼촌. 어머니와 이모들

2) 조각 형태: 가족 모두를 비난하는 외할아버지, 외할아버지 왼쪽 곁에 초이성형의 자세로 가족을 등지고 서 있는 작은외삼촌. 가족들 뒤로 가서 모든 가족들을 회유하는 할머니, 외할아버지 앞에 회유하는 큰외삼촌. 외할아버지 오른쪽에서 외할아버지를 비난하는 어머니. 그 옆에서 이모들을 비난하며 서 있는 막내이모. 외할머니와 큰외삼촌 뒤에서 외할아버지와 막내이모를 회유하며 무릎을 끓고 있는 작은이모 2.

3) 대표적 언어 : 외할아버지: 다들 못 마땅해.// 큰외삼촌: 내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큰이모: 나만 희생하면 돼.// 작은 이모: 나는 상관없어. // 막내 이모: 나만 이쁨 받으면 돼.// 어머니: 오기 부리지 마세요. (역할자들은 각자의 자세를 유지하며 같은 대사를 반복 함.)

안내자는 다른 역할자들은 자세만 취하게 하고, 어머니만 외할아버지를 비난하는 자세로 “오기 부리지 마세요”를 말하도록 지시하였다. 어머니는 강한 목소리로 비난하는 말을 반복한다. 안내자가 스타에게 지금의 느낌을 묻자, 스타는 “어떻게 저렇게 대들 수 있을까?... 이 모습이 저한테 그대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라고 반응하였다. 안내자는 이것을 어머니에게 표현하도록 지시하였다. 스타는 다음과 같이 반응하였다.

“어머니가 그렇게 대들면 제가 본 받는다고요. 제가 본 받는다고요. 대들지마요. 저도 엄마한테 대들게 된다니까요 대들지 마요. 왜 그래요? 왜? 왜 그래요? 왜 그러냐니까요? 어머니 그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된거라구요. 어머니 그 욱하는 성질 때문에 제가 이렇게 된 거라구요.... 차라리 빌어요. 비는게 낫다구요. 대들지 말라구요.”

안내자가 스타에게 다시 한번 지금의 느낌을 묻자, 스타는 어머니에 대한 매우 강렬한 분노의 감정을 표현하였다. 안내자는 스타대역으로 하여금 스타가 했던 그대로 역할을 하게 하면서 스타에게 거리를 두고 지켜보게 하였다. 안내자는 스타를 어머니와 같은 위치에 서서 어머니와 똑같은 자세를 취하게 한 다음 스타대역으로 하여금 역할을 하게 하였다. 스타대역이 역할을 하는 동안 스타는 엎드려 목놓아 운다. 안내자는 스타가 충분히 감정을 표현하도록 돕는다. 그 동안 역할자들은 자신이 맡은 역할을 계속하였다. 어머니의 위치에서 경험을 한 후 스타는 “어머니에게 어떤 말을 하고 싶은가?”라는 질문에 다음과 같이 반응하였다.

“어머니하고 싶은거 다 하세요. 어머니하고 싶은거 하셔야, 어머니가 행복해요. 어머니 행복하세요. 진짜... 행복하세요. 다른 것은 생각하지 마시고...어머니 행복하세요. [안내자: 자, 표현하세요.] 엄마 힘든데... 대우도 못 받고...어머니 마음도 몰라주고..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흐느껴 울음) 어머니 죄송해요. 어머니. 어머니.(울음 55초)(어머니가 가서 스타를 안고 쓰다듬어 줌.)”

안내자는 스타에게 자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어머니의 원가족을 재 조각하게 하였다.

☞ 가족 조각 6.

1) 구성원: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큰외삼촌, 작은외삼촌. 어머니와 이모들

2) 조각 형태: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 사이에 어머니를 세우고, 그 옆으로 이모들과 외삼촌들을 세워 가족 사진 찍는 모습으로 조각.

조각이 끝난 후 어머니 역할을 하는 구성원이 크게 울음을 터트리고, 스타는 다가가서 "어머니 하시고 싶은 대로 다 하시고, 어머니 하시는 것 제가 다 도와 드릴께요."라고 말한 후 두 사람이 한동안 함께 울면서 서로 위로하였다. 안내자는 역할자들이 역할을 벗고 들어가도록 하고, 전체 장에서 스타, 역할자 및 다른 집단원들이 함께 소감을 나누었다.

스타 부모의 결혼 과정 조각

안내자는 스타에게 아버지와 어머니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게 된 과정을 조각으로 구성하도록 하였다. 스타가 제시한 상황은 다음과 같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중매로 만났으며 두 분이 모두 경제적으로 어려웠다. 아버지는 결혼하라면 해야지 하는 태도였고, 어머니는 그때 아버지가 공무원이시니까, 결혼해서 못했던 공부를 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졌다.

☞ 가족 조각 7.

1) 구성원 : 할아버지, 외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2) 조각 형태 : 아버지를 마주 바라보며 서 있는 어머니. 할아버지와 어머니 양쪽을 향해 비스듬히 앉아 회유하는 아버지. 아버지를 비난하는 모습의 할아버지. 어머니를 비난하는 모습의 외할아버지.

3) 대표적 언어 : 외할아버지: 네가 빨리 결혼해야 돼.// 어머니: 내게는 희망이 있어, 이젠 공부할 수 있게 됐다.// 할아버지: 빨리빨리 치루어 버려야지.// 아버지: 알았어요, 아버지. (역할자들은 각자의 자세를 유지하며 대사를 반복 함.)

안내자는 스타가 이를 경험하게 한 후, 형이 태어난 후의 가족 조각을 구성하게 하였다.

스타 가족의 재조각

☞ 가족 조각 8.

1) 구성원: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형

2) 조각 형태: 초이성형의 모습으로 서 있는 아버지. 아버지 옆에서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 무릎 끓고 애원하는 어머니. 아버지와 어머니를 비난하며, 형을 사이에 안고 귀여워하는 할아버지와 할머니.

3) 대표적 언어 : 할아버지: 너희 할 일들을 해야지.// 할머니: 일이나 열심히 해.// 어머니: 제 아들을 돌려주세요, 제발. (역할자들은 각자의 대사를 동시에 외치며, 계속적으로 반복.)

이 과정 동안 스타는 매우 안타까워하며 "아버지가 형을 뺏기지 말고 데리고 왔으면 좋겠어요."라고 하였다. 안내자를 스타가 이 감정을 표현하도록 돕는다. 스타는 강하게 안타까운 감정을 표현하며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 과정에서 안내자는 스타가 자신의 감정을 충분히 표현하도록 돕는다.

> "아버지가 형을 뺏기지 말고 데리고 왔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형은 아버지 아들이잖아요. 왜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뺏겨요. 아버지가 사랑을 줘야죠. 아버지 사랑 안 받으면 형 큰일나요..... 아버지 바보예요? 아버지, 바보예요?.... (소리가 점점 커짐) 진짜 답답해요. 답답해 죽겠어요. 아버지가

지금 이렇게 하는게,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아버지 진짜 후회하신다구요".

안내자는 아버지의 자리에 스타를 서게 한 다음, 아버지로 하여금 스타의 위치에서 스타가 아버지에게 했던 말을 하게 한다. 아버지는 스타의 입장에서 대사를 되풀이한다. 안내자가 스타에게 아버지의 심정을 묻자, 스타는 한숨을 쉬며 "뺏기고 싶어서 뺏긴 것이 아니라고."하며 "어쩔 줄을 모르겠다."고 반응하였다. 스타가 제시한 대로 아버지가 역할을 한 후 스타는 "아버지가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을 충분히 알겠다."고 아버지의 입장을 이해하였다. 안내자는 그 이후 역할자들에게 역할을 계속하도록 지시하였다. 역할자들이 역할을 계속하는 동안 안내자는 스타를 어머니의 옆에 앉아보게 하였다. 그 후 어머니의 심정을 질문하고 스타는 "아무리 빌어도 소용이 없다."고 반응하였다. 안내자는 다른 역할자들은 침묵을 지키게 하고 어머니에게만 "제발 내 아들을 돌려주세요."를 되풀이하게 하였다. 어머니가 이 말을 되풀이 하고 있는 동안, 스타는 어머니를 향하여 "그만 빌어요. 빌어도 소용없어요. ...소용없다니까요...(점점 소리가 높아감). 어머니가 백번천번 빌어도 형 안 줘요... 때가 되면 알아서 주실테니까 그만 빌어요..."라고 외친다.

안내자는 스타를 어머니 옆에 앉게 하고, 아버지로 하여금 스타의 위치에서 스타가 했던 소리를 반복하게 하였다. 다른 사람들은 조그만 소리로 반복하도록 지시하고, 각 역할자들은 자신이 맡은 역할을 하였다. 스타는 이를 경험한 후, 어머니의 입장에서는 "빌지라도 않으면, 빌기라도 해야.."하는 심정임을 표현하고 어머니는 이를 반복하였다. 이 과정 후, 안내자는 스타와 함께 그 이후의 가족의 관계를 조각으로 표현하게 하였다. 스타가 태어나기 전에 유산이 한번 있었으나, 스타는 그로 인한 영향을 별로 받지 않은 듯하며,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모르겠다고 답하였다. 스타가 태어나 후에도 형은 계속 전 가족의 귀여움을 받으며 자라고, 스타 가족은 스타가 딸이기를 바랐다.

☞ 가족 조각 9.

1) 구성원: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형, 작은삼촌, 고모,

2) 조각 형태: 아버지와 어머니를 비난하는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사이에서 허리에 손을 얹고 뻐기는 자세의 형. 할머니의 옆에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비난하는 모습의 작은삼촌과 고모. 할아버지, 할머니, 작은삼촌과 고모 앞에서 모두를 향해 회유하는 아버지와 어머니.

3) 대표적인 언어 : 할아버지: 네가 책임 져야해. // 할머니: 일이나 해.// 어머니: 열심히 할께요. // 아버지: 알았어요, 돈벌께요.// 고모, 삼촌: 빨리 내놔요. (역할자들 각자의 자세를 취하고 대사를 동시에 외침, 계속 반복)

안내자는 스타에게 집단원 중에서 어린 시절의 스타대역(이하 어린 스타대역)을 고르게 한 후 "내가 딸이었으면 정말 이쁨 받을텐데"라는 대사를 되풀이하도록 하였다. 스타는 이 과정에서 어린 스타 대역에게 "너는 아들이야... 딸이었으면 이쁨 받았겠지. 근데 널 어쩔 수 없는 아들이야." 라고 반응하였다. 안내자는 스타에게 지금의 마음을 표현하도록 하였다. 스타는 이 과정을 보는 마음이 "짜증이 난다."고 하며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딸이었으면 뭐? 뭘 어쩌겠다구. 응? 형이 누리고 있는 걸 다 뺏고 싶다고? 너도 형

처럼 되고 싶다구? 니가 아들이나 딸이나 다 할 수 있는거 아냐!... 웃기지마. [이때 안내자는 어린 스타대역에게 "내가 딸이었으면 정말 이쁨 받을텐데"라는 대사를 조그만 목소리로 되풀이하도록 하였고, 스타가 큰소리로 외치는 동안 어린 스타 대역은 계속 같은 말을 되풀이 한다.] 야, 조용해! 야이, 병신아. 조용히 안 해? ...닥쳐!.. 닥쳐, 닥치라구... 너는 아들이라니깐!네가 그런 것 때문에 나중에 얼마나 후회하는 줄 알아?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이 말을 하면서 스타는 자기 자신의 어린 시절을 반영하는 스타대역에게 강한 분노의 감정을 표현하였다. 안내자는 스타를 어린 스타대역 옆에 앉히고, 아버지를 스타의 자리에 서게 한 후, 어린 스타대역에게 자신의 역할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어린 스타대역이 역할을 하는 동안 스타의 자리에 서 있는 아버지에게 스타가 했던 말을 반복하게 하였다. 스타가 이를 경험한 후, 안내자는 아버지와 스타의 자리를 원래대로 바꾸게 하였다. 스타는 이 과정에서 자신이 정말 사랑 받고 싶어했음을 확인하게 되고, 자신의 어린 시절 대역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하도록 하자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넌 사랑 받을꺼야. . . 넌 정말 사랑 많이 받고, 남들한테 관심도 많이 받고, 그럴 거야. (어린 스타대역을 다독거리며) 걱정하지마. 걱정하지마. 너 정말 사랑 받게 돼. 절대 걱정하지마. 아무리 뭐라고 해도, 네가 남자건 여자건 넌 사랑 받게 돼."

안내자는 아버지를 스타의 자리에 세우고, 스타는 어린 스타대역 옆에 앉게 한 후, 아버지에게 스타가 스타대역에게 했던 말을 스타에게 반복하도록 지시하였다. 아버지는 스타를 쓰다듬으며 "넌 사랑 받을 수 있어. 넌 정말 솔직하고 근사한 놈이니까. 네가 남자건 여자건 넌 정말 사랑 받을 수 있어. 넌 정말 솔직하고 근사한 놈이야."를 몇번 반복하였다. 안내자는 아버지를 제위치로 보내고 스타를 다시 나오게 하였다. 가족에서 막내가 출생한 후의 가족을 조각하였다.

☞ 가족 조각 10.

1) 구성원: 아버지, 어머니, 형, 스타대역. 막내

2) 조각 형태: 가족들을 모두 비난하는 모습의 아버지. 그 앞에서 형과 아버지를 비난하는 어머니. 어머니를 비난하는 모습의 형. 형과 어머니를 회유하는 스타대역. 어머니 팔짱을 끼고 있는 막내.

3) 대표적 언어 : 아버지: 힘들어 죽겠네.// 어머니: (형을 향해)그만해, (아버지를 향해) 술 먹지마.// 형: 돈 내놔.// 스타대역: 싸우지 마세요.

역할자들 각자의 대사를 동시에 외치며 계속 반복하였다. 스타는 이를 답답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다. 안내자의 질문에 스타는 아버지에게 가장 마음이 가며, 무섭다는 마음이 든다고 반응하였다. 안내자는 어린 스타대역에게 이 마음을 표현하도록 지시하였다. 어린 스타대역이 "아버지, 무서워요. 정말 무서워요. 아버지 그러지 마세요, 무서워요."를 반복하는 동안 스타는 어린 스타 대역이 불쌍하며 미칠 것 같다고 표현하였다. 자신의 심정을 직접 표현하도록 하자 아주 강한 분노를 터뜨린다. 역할자들이 번갈아가며 자신의 대사를 반복하는 동안 스타는 매우 괴로워하며 큰소리로 울면서 분노를 표현하였다. 안내자는 스타가 분노를 충분히 경험할 수 있도록 격려하였다. 스타는 계속 울음을 울면서 강한 분

노를 표현한다. 분노의 감정을 충분히 표현한 후 스타는 아버지의 건강에 대한 염려를 지니고 있음을 표현하였다.

원가족 조각의 마무리

안내자는 스타를 아버지 뒤에 세우고, 관찰자로 있던 현재의 스타대역을 스타의 위치에 세우고 스타의 심정을 표현하도록 하였다. 현재의 스타대역은 스타의 말을 재연하였다. 안내자가 스타에게 아버지의 심정이 어떨 것인가를 묻자, 스타는 "먹고살아야 하기 때문에... 술 먹는 것 괴롭다."고 표현하였다. 안내자가 아버지에게 이를 표현하도록 하자, 스타는 힘이 드는 듯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 스타가 아버지에게 하고 싶은 말을 표현하도록 하자, 스타는 아버지에게 다가가 손을 잡고 말하였다.

"아버지, 죄송하구요.. . .건강하게 오래 사세요. 제가요... 정말 못났지만... 아버지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소리 높여) 아버지, 제가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아버지와 스타 껴안는다.)"

안내자는 다시 스타를 상황 밖으로 나오게 하고, 어머니에게 역할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어머니는 아버지를 향해서는 "술 먹지 말란 말이에요."라고 비난하며, 형을 향해서는 "넌 공부나 해."라고 하였다. 스타는 이 과정을 경험한 후 어머니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며, 형에게 다가가서 포옹하며 "형, 형.. 진짜 내 형이야.. 형이 뭘 해도 다 괜찮아..."라고 말하며 운다. 자신의 어린 시절 대역에게는 "너... 너 안 돌아. 걱정하지마. 너 절대 안 돌고, 너는 다 이겨낼 수 있어. 알았지? 걱정하지마. 힘내."라고 하였다.

안내자는 스타를 어린 스타대역 옆에 앉히고 현재의 스타대역에게 스타를 쓰다듬으면서 스타가 했던 말을 반복하게 하였다. 현재의 스타대역이 그대로 한 후, 스타에게 자신의 가족을 원하는 모습으로 조각하도록 하였다. 스타는 조각을 한 후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다시 조각하였다.

☞ 가족 조각 11.

1) 구성원: 아버지, 어머니, 형, 스타대역, 막내

2) 조각 형태: 책상을 가져와 아버지와 어머니를 나란히 앉힌 다음, 그 뒤에 스타대역, 형, 막내를 세워서 가족 사진 찍는 모습으로 구성.

재구성 작업의 마무리

안내자는 전체 과정에 대한 소감 나누기를 한 후 집단을 마무리하였다. 가족 재구성 과정을 마친 후 스타의 소감은 다음과 같다.

"내가 맞고 자랐고, 부모님이 맞고... 안 좋은 것들이, 소리지르고... 내 밑으로는 절대 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 . . 대물림은 절대 시키지 말아야겠다. . 조카한테 절대 그런 일은 시키지 않아야 되겠다. 내가 그것들을 다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정말 바보 같기도 하고. 부모님, 어쩔 수 없었다는 게 이해... 대물림은 안되겠구나....[안내자: 자기 자신은 어떻게 새롭게 보이나?] 정말로 사랑 받는 것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고 싶었고....사랑받고 있고 존중받고 있는 사람이다...다른 사람을 많이 사랑할 수 있겠다."

가족 재구성 과정에서 가족의 역할을 맡았던 집단원들의 소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아버지: 아버지도 좋은 가정 꾸리고, 화목하게 살고 싶은데... 답답했다. 정말 힘들고, 도피하고 싶은데, 그걸 꾹 참고 가족들을 돌보는데... 너무 힘이 들었다.

어머니: 어머니가 참 외롭고 슬프셨을 것 같다. 해 보니깐 아들을 돌려달라고 할 때의 느낌이 슬픈 마음이. . 남편하고 자식이 막 비난하고 그러는데... 참 그 때 외롭게 느껴졌다. 그런데도 마지막에 아들이 멀찌감치 떨어져 가지고 알았다고 그러는데... 참 서운했었다.

어린 스타 대역: 집안의 중심이 아이였던 시점의 스타였는데. 어쨌든 내가 가족 안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엄마 아버지에게 싸우지 말라고 비는데, 사실은 그 상황이 굉장히 구차스럽고... 아버지, 어머니, 형. 세 사람을 다 보기가 벅찼다. 내가 빈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내 말을 들어주는 거 아니고, 가능하다면, 내가 안 빌고 이 집에서 나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스타가 고등학교 때 집을 떠나고 싶다는 생각....당연하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리고 빌 때 느낌보다도 스타가 자기한테 얘기할 때가 더 괴로웠다.

형: 형으로서, 어머니가 비난하는 것을 이해....경험을 하면서, 내가 우리 집에서....동생에게 끼친 영향이 많을 것 같아서... 잘 해야 되겠다. 같이 안았을 때는.... 그 느낌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뭔가 참 큰 것을 얻은 느낌. 스타가 형을 가서 안는다면 지금의 내 기분이 날 것 같다.

막내: 큰형이 되게 싫었다....엄마에게 하는 큰형의 태도가 막 그래서...엄마한테 기대고 싶었다. 엄마 모습이... 혼자 떨어져 사는 느낌이 들었다.

스타 대역: 첫 장면에서 엄청나게 지쳤다. 스타가 너무나 힘들었을 것 같다. 아버지, 어머니, 형, 전부 다....나름대로 각자가 어떤 순간에서 선택을 했던 것 같다. 스트레스 상황에서 아버지는 비난형을, 회유형을 할 수밖에 없었고, 어머니는 비난형을 할 수밖에 없었고..... 마지막에 스타를 보면서, 자신의 의지, 하고 싶다는 그 열망, 그러면 됐다. 너 잘 될거야.....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그건 당연한 말이다, 확인했던 거...

3개월 후의 스타의 변화

가족 재구성 작업이 스타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문장완성 검사와 집단 참여 후 변화에 대한 주관적 질문지에 대한 응답을 표 1에 제시하였다. 문장 완성 검사는 총 50 문항이나 여기에는 그중 일부만 제시하였다.

스타는 3개월 후 추후 조사에서 본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를 아주 불만이다가 1점이고 아주 만족스럽다가 7점인 척도에서 7점에 표시하였으며 집단 경험 후 가족관계의 변화에 대하여는 표 2와 같이 응답하였다.

집단원들의 가족 만족도, 사회적지지 및 자아 존중감의 변화

집단 참가자들이 집단에 참여한 후 가족 만족도, 사회적지지 및 자아 존중감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가를 알아본 결과가 표 3에 제시되어있다.

가족 만족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며, 사회적지지와 자아 존중감에서는 일주일 후 측정에서는 사전 측정과 차이가 없었으나, 일개월 후에는 $p < .0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었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자기 성장을 목표로 하는 집단에서 Satir의 가족 재구성 과정을 통하여 스타가

표 1. 사전과 3개월 후의 문장 완성 검사의 비교

문항 내용	사 전	3개월후
2. 내 생각에 가끔 아버지는	상냥하시다.	아이 같으실 때가 있다.
3. 우리 윗사람들은	구세대다.	좋은 사람들.
5. 어리석게도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또 다른 나 (술먹고 필름 끊긴)	나의 외로움이다.
12. 다른 가정과 비교해서 우리 집안은	조용한 척 한다.	행복하다.
13. 나의 어머니는	열성적이다. 천사다.	철인이지만 여성이다.
16. 내가 정말 행복할 수 있으려면	나의 틀을 깨고, 내적으로 풍요로워져야.	감사해야한다.
19. 대개 아버지들이란	무섭다.	존경받고 싶어한다.
21. 다른 친구들이 모르는 나만의 두려움은	내가 미칠 것 같다.	내가 벌받을 거라는 것.
23. 결혼생활에 대한 나의 생각은	해도좋고 안해도 좋다.	축복 받고 싶다.
24. 우리 가족이 나에 대해서	이젠 포기했다.	자랑스러워한다.
26. 어머니와 나는	그냥 그렇다.	가깝다.
27. 내가 저지른 가장 큰 잘못은	친구 이빨 깨서 돈 들어간 것.	여자를 발로 찬 것.
29. 내가 바라기에 아버지는	교회에 다니셔야 한다.	이제 최고다.
32.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아버지다.	어머니.
34. 나의 가장 큰 결점은	과장하는 것.	털털하고, 아니 그거다.
35. 내가 아는 대부분의 집안은	사연이 있다.	소박하고. 싸우기도 하고 행복하다.
39. 대개 어머니들이란	희생하는 사람이다.	자식들을 사랑한다.
40. 내가 잊고 싶은 두려움은	내가 다른 이들과 다르다는 것.	내가 혼자라는 것.
45. 생생한 어린 시절의 기억은	어머니가 맞는 기억.	동생이 사고 난 것 !!
48. 내가 어렸을 때 우리 가족은	처절했다.	심난하고 무시무시했다.
49. 나는 어머니를 좋아했지만	힘들었다.	내가 어머니를 너무 완벽하게 생각했다.
50. 아버지와 나는	편한 사이가 됐다.	이제 소주도 마신다.

표 2. 3개월 후 스타의 주관적 설문지에 대한 응답

1. a. 아버지에 대한 지각이 집단 전과 후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예 / 아니오
   어떤 점인가요? *아버지가 나를 따스하게 대해 주셔요.*
   b. 아버지를 대할 때 자신의 태도가 집단 전과 후에 달라진 점이 있습니까? 예 / 아니오
   어떤 점인가요? *그냥 너무 안타까워요. 지금에서야 이해할 수 있는 상태가 돼서. 지금에라도 가능해 진 것이 감사하죠.*
2. a. 어머니에 대한 지각이 집단 전과 후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예 / 아니오
   어떤 점인가요? *어머니는 perfect할 수 없다는 것.*
   b. 어머니를 대할 때 자신의 태도가 집단 전과 후에 달라진 점이 있습니까? 예 / 아니오
   어떤 점인가요? *차분해졌어요. 신경질도 덜 내게 되고..*
3. a. 형제에 대한 지각이 집단 전과 후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예 / 아니오
   어떤 점인가요? *'다들 힘들었겠구나.'*
   b. 형제를 대할 때 자신의 태도가 집단 전과 후에 달라진 점이 있습니까? 예 / 아니오
   어떤 점인가요? *이제 형하고 동생하고 경쟁하지 않아요. 그 에너지를 다른 곳에 써야죠.*
4. a. 스타를 경험한 것(경험한 사람에 한함)이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습니까?
   Good! 결코 후회 없어요. 사람들을 믿을 수 있게 돼서 좋아요.
   b. 역할자를 경험한 것이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습니까? *Good!*
   c. 관찰자를 경험한 것이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습니까? *모르겠는데요.*
5. 집단을 통하여 자신에게 변화가 있었다면? *보다 많은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어서 좋아요.*

표 3. 사회적지지 및 자아존중감의 사전, 사후 및 추후 점수의 평균과 표준 편차

척도	사전	사후	추후	사전-사후 *t*	사전-추후 *t*
사회적지지	38.77(8.77)	42.92(4.70)	43.23(6.95)	2.75	3.71*
자아존중감	30.92(3.84)	33.00(2.83)	34.15(1.82)	2.30	3.19*

주. * p <.005

경험하는 변화와 집단의 참여자들이 가족 만족도와 사회적지지 및 자아 존중감에서 어떤 변화를 보이는지를 검증하였다.

가족 재구성 과정에 참여했던 스타의 사례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재구성 과정 자체에서도 스타는 가족을 보는 시각의 변화가 생긴다. 여기에는 제시하지 않았으나, 이 과정을 통하여 가족의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들과 관찰자들도 피드백 과정을 통해 그들의 내면세계에 변화가 있었음을 보고하였다. 스타가 과정을 통하여 얻게된 변화는 뚜렷하다. 도입단계에서 스타는 자신의 가족에 이어지는 폭력과 알콜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원가족의 가족 조각을 통하여 스타는 형이 당하고 있는 폭력 장면에 무기력하게 대처했던 과거

를 재연하고, 재구성 과정에서 형을 적극적으로 구출하는 경험을 함으로써 가족을 새로운 시각으로 조망할 수 있게 되었다. 원하는 가족의 모습을 통하여 부모에게 감사하고 형에 대한 애정을 표현함으로써 자신이 가족에서 바라는 상태를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 부모의 원가족 조각을 통하여 스타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겪었을 고통을 함께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 아버지의 원가족 조각을 통하여는 아버지에 대한 안타까움과 사랑을 표현하면서도 아버지가 자신의 고통을 자녀들에게 전가시킨 것에 대한 원망이 있었다. 안내자는 이 상처를 다시 재연하도록 하고 스타가 아버지의 위치에서 이를 경험하도록 하여 스타가 아버지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가족 재구성 집단이 갖는 중요한 특징중의 하나로써 스타가 가족중 한 사람의 입장이 되어 보는 경험이 그 구성원에 대한 이해에 큰 역할을 하는 것을 보여주는 예이다. 스타는 어머니의 원가족 조각을 할 때 어머니에 대한 강력한 분노를 표출하였다. 그리고 어머니의 위치에서 어머니의 입장이 되어 본 후에는 어머니에 대한 이해와 죄송함 및 애정의 감정을 경험하게 된다. 이때 어머니의 역할을 했던 집단원 역시 매우 강렬한 정서적 경험을 하게 되었다. 이는 가족 재구성 집단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일로 Satir 등(1991/2000)이 제시하는 빙산의 모델에서 열망의 부분은 인류의 공통적인 부분임을 반영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스타 부모의 결혼 과정과 형제들의 출산이 가족에 준 영향을 조각하면서도 스타는 유사한 경험을 한다. 특히, 스타 자신은 딸을 바라는 가정에서 둘째로 태어나 집안의 총애를 받는 형을 질투하면서 성장한 과정을 재경험함으로써 자신에 대한 통찰을 얻게된다. 원가족 조각의 마무리와 재구성 과정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스타는 부모에 대한 이해를 재확인하고 자신이 사랑받을 가치가 있음과 사랑할 수 있음을 확인한다. 이는 가족 재구성 과정의 즉각적인 효과로서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배워 현재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할 수 있게되는 것이다. 현재의 지각과 경험을 바꿈으로써 더 건강한 미래에 대한 초석을 놓을 수 있게 된다. Satir의 치료적 원리 중 하나는 우리는 과거를 변화시킬 수는 없지만 과거의 영향은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가족 재구성 과정을 통해서도 스타는 과거를 변화시킬 수는 없으나 과거에 대한 지각과 해석이 됨으로써 그가 받은 영향을 변화를 시킬 수 있었다. 재구성 작업이 끝난 후 가족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의 소감에서도 스타에 대한 반응 뿐 아니라 그들 자신에게 영향을 주는 경험이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스타의 변화는 3개월 후에 조사한 문장완성 검사와 주관적 보고에서 아주 분명히 드러난다.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지각의 변화가 있었을 뿐 아니라 자기에 대한 관점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가 일어났다. 이 결과는 내담자의 관계에 대한 지각이 변화하면 관계 자체도 변화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Taylor(2002)도 가족 재구성 참여자의 가족관계가 긍정적으로 변화한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다른 구성원에 대한 질적인 자료는 제시하지 않았으나 사회적 지지와 자아 존중감의 변화는 스타 이외의 구성원에게도 긍정적 변화가 일어났음을 보여주고 있다. 자존감의 향상은 Satir 모델을 사용하여 집단 치료를 시도한 연구들(심혜숙, 김수연, 2000; 유수경, 1996; 한선화, 1997)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것이다. Satir 모델이 개인의 특수한 목표와 더불어 모든 내담자들이 자존감을 증진시키고, 선택과 책임을 지며, 일치적인 존재가 되도록 돕는 목표를 가지고 있

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가족 재구성의 결과로 자존감의 향상이 일어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 하겠다. 이 연구에서 나타난 특이한 점은 집단이 끝난 후 일주일 후에는 자존감이나 사회적 지지의 지각에 유의한 변화가 없었으나, 일개월 후에는 두 척도 모두가 유의한 변화를 보인 것이다. 이는 가족 재구성 집단이 단기적인 효과보다는 장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간접적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가족 재구성 집단의 장기적인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가족 재구성 집단의 경험이 가족 만족도에는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사용된 척도는 가족 적응성과 가족 응집성을 측정하는 질문지였으나 가족 재구성의 결과를 측정하는데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는 추후의 연구에서 재검증이 필요한 부분이다.

본 연구는 Satir 모델의 중요한 기법이며 개인의 존재에 본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면서도 자주 사용되지 않는 가족 재구성 방법을 자기 성장을 위한 집단에 적용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로 자신의 가족을 재구성하는 작업에 참여한 스타뿐 아니라 다른 집단원들도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알아낼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연구는 다른 이론적 입장과 비교하여 상대적 효과를 검증하지는 못했으며, 가족 재구성 방법의 집단 상담에 대한 적용 가능성을 제시하는데 그쳤다. 앞으로 이 모델을 좀 더 정교하게 다듬어 다른 모델과의 효과 비교를 해볼 필요도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시간 집중적 방법을 사용하였으나 Taylor(2002)가 제안하였듯이 이를 매주 3시간 정도씩 주간 집단으로 진행하는 방법도 가능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정희 (1992). 중년 여성의 적응과 일상적 스트레스 및 정서적 경험의 관계: 심리적 자원과 사회적 자원의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과 심리치료, 4(1), 54-63.

심혜숙, 김수연 (2000). Satir의 가족조각 기법 집단상담이 인생태도에 미치는 효과 및 상담효과 요인 분석. 한국 가족치료학회지, 8(2), 3-22.

유수경 (1996). Satir 가족치료 이론을 바탕으로 한 집단 상담 효과 분석.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영자 (1994). 스트레스, 사회적지지, 자아존중감과 우울 및 불안의 관계.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장호, 김정희 (1992). 집단 상담의 원리와 실제. 서울: 법문사.

한상분 (1992). 아동의 자아개념과 가족체계의 기능유형: Circumplex Model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한선화 (1997). Satir 가족치료 이론을 바탕으로 한 집단 상담이 여고생의 자아 존중감 및 자녀-부모간 의사소통에 미치는 효과.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한은영 (2002). 정신역동 집단상담이 대인관계 문제감소에 미치는 효과.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Banman, J. (2001). *Satir brief system therapy workshop* 자료집. 서울: 김영애 가족치료 연구소.

Blatner, H. A. (1988). 사이코 드라마. (이근후, 임계원 역) 서울: 하나의학사. (원전은 1973년에 출판).

Corey, M. S. & Corey, G. (2000). 집단상담 과정과

실제. (김명권, 김창대, 박애선, 전종국, 천성문 역) 서울: 시그마프레스. (원전은 1995년에 출판).

Douglas, C. (2000). Analytical psychotherapy In R. J. Corsini & D. Wedding (Eds.) *Current Psychotherapies,* (pp. 99-132) Illinois.: F. E. Peacock Publishers, Inc.

Palmer, H. (2000). 다시 떠오르기 (문진희, 일루, 손인국, 이균형 역) 서울: 정신세계사. (원전은 1994년에 출판).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 Princeton University Press

Raskin, N. J. & Rogers, C. R. (2000). Person-centered therapy. In R. J. Corsini & D. Wedding (Eds.) *Current Psycho- therapies* (pp.133-167). Illinois.: F. E. Peacock Publishers, Inc.

Satir, V. (1988). *The New People Making.* California: Science and Behavior Books, Inc

Satir, V., Banman, J., Gerber, J., & Gomori, M. (2000). 사티어 모델: 가족치료의 지평을 넘어서. (한국버지니아 사티어 연구회 역) 서울: 김영애 가족치료 연구소. (원전은 1991년에 출판).

Taylor, G. (2002). Family reconstruction. *Contemporary Family Therapy, 24*(1), 129-138.

Yalom, I. D. (1995). *The Theory and Practice of Group Psychotherapy. (*4th. ed.) New York: Basic Books.

Yeun, L. M.(1980). Family reconstruction: a study of its effects on self-concept, irrational beliefs, and interpersonal percep-tion in college stud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alifornia School of Professional Psychology-Berkeley/ Alame- da.

Yontef, G. & Jacobs, L. (2000). Gestalt therapy. In R. J. Corsini & D. Wedding (Eds.) *Current Psychotherapies* (pp. 303- 339). Illinois.: F. E. Peacock Publishers, Inc.

원 고 접 수 일 : 2002. 3. 30
수정원고접수일 : 2002. 8. 29
게 재 결 정 일 : 2002. 9. 7

한국심리학회지 : 상담 및 심리치료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002. Vol. 14, No. 3, 599-619

Self-Growth Group Counseling Program Using Family Reconstruction Model

Chunghee Kim

Chonbuk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group counseling program using Satir's family reconstruction model. The goal of this group is to extend self awareness and to handle interpersonal conflicts. 18 members attended to the four-day marathon group. The program is divided into three parts: pre-group exercise, family reconstruction procedure, and sharing part. One of the group members who wants to handle his/her family relationship would become star and proceed family reconstruction procedure. This procedure has seven steps: introduction, sculpturing family of origin, sculpturing father's and mother's family of origin, sculpturing parent's marriage process, sculpturing star's family after parent's marriage, re-sculpturing family of origin, and closing procedure which is sharing the experience. One session of reconstruction procedure goes approximately three to four hours. A case example of family reconstruction procedure is presented. During the session, star experienced impacts of his past and reconstructed his family sculpture. As a result, he could have new perceptions of his family relationship and himself. Three months after, he reported positively directional change has been sustained. There was no significant change of social support and self-esteem of group members between before and one week after the group. However, there was significant change of those two measures between before and one month after the group. It shows that family reconstruction method may have long term effect on person's change.

Key Words : family reconstruction, group, STAR, family sculpture, family of origin, Self